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1-02 (월요일)

[오늘의 한 줄]

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인텔이 -29%(1970년대 이후 최악의 하루)로 반도체 지수를 -7.2% 끌어내렸고, 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중재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협상한다는 소식에 -4%대로 급락했습니다. 한국은 10월 수출이 반도체(+259%)에 힘입어 전년 +93.7%라는 기록적 증가를 보인 가운데, 기관이 1.2조원을 사들이며 코스피 +2.24%(5,859.08) 반등을 이끌었습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1/2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- 코스피 5,859.08 (+128.34, +2.24%). -1.62%(5,637.77)로 갭하락 출발했지만 기관 매수에 전약후강, 장중 5,910.83까지 올랐습니다. 3거래일 만의 반등, 상승 653개 대 하락 230개 종목.
- 코스닥 734.36 (+9.98, +1.38%).
- 삼성전자 229,000원 (+1.78%). SK하이닉스 147만2천원 (+3.81%). 삼성전기 119만3천원 (-0.25%).
- 전력기기 3종 급등: 효성중공업 205만원 (+13.32%), LS일렉트릭 160,600원 (+7.35%), HD현대일렉트릭 446,500원 (+5.18%). 전력설비 테마 전체(+8.14%)가 크게 반등했습니다.
- 반등 배경: 주말에 발표된 10월 수출이 1,152.8억 달러로 전년 +93.7%(반도체 수출 +259%, 2개월 연속 1,100억 달러 이상, 1~10월 누적 사상 첫 9,000억 달러 돌파). 신한투자증권은 "인텔 급락은 금요일에 선반영됐고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도 하단 지지"라고 분석. 한화오션은 필리핀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첫 수주 소식에 9%대 급등.

출처: 한국금융경제신문 https://www.kfe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67391, 머니투데이 https://www.mt.co.kr/index.php/stock/2026/11/02/2026110216034248456, 산업통상부 10월 수출입 동향 https://www.motir.go.kr/kor/article/ATCL3f49a5a8c/172360/view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- 코스피: 기관 +1조2,329억원(금융투자 +5,776억, 투신 +2,644억, 연기금등 +1,699억, 사모 +1,660억), 개인 -1조3,475억원, 외국인 -3,685억원, 기타법인 +4,877억원.
- 코스닥: 기관 +623억원, 개인 -260억원, 외국인 -321억원, 기타법인 -41억원.
- 연기금은 금요일(+8,929억원, 머니투데이는 8,965억원으로 2022년 1월 이후 두 번째 규모라고 평가)에 이어 이틀 연속 순매수. 다만 10월 한 달(30일 제외)로는 760억원 순매도였고,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5.8%로 목표(20.8%)와 한도(26.8%) 사이 높은 수준이라 '연기금이 계속 사주긴 어렵다'는 지적이 나옵니다.

- 누적(9/23부터 25거래일,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, 근사치):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29.0조원, 코스닥 약 1.15조원. [계산]
- ※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(위 표는 15:35 기준).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02131900008

■ 미국 시장 (10/30 금요일 마감)

- 기술주 매도 심화: 나스닥 25,437.00 (-2.86%), S&P500 7,580.07 (-1.82%), 다우 51,770.31 (-1.09%), 반도체지수(SOX) 10,688.80 (-7.20%). 나스닥은 10월 월간으로 1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(WSJ). '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가'에 대한 의심이 매도로 이어졌다는 평가(AP).
- 인텔 -29%: 이스라엘 공장 가동 중단과 PC 시장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쳐 1970년대 이후 최악의 하루. 아마존도 실적 미스 여파로 -1.41%.
- 개별: 샌디스크 1,150.89 (-13.47%), 코어위브 54.87 (-9.66%), 오라클 130.67 (-6.37%), 팔란티어 184.11 (-6.27%), 마이크론 884.74 (-5.30%), 아이온큐 30.04 (-5.30%), 엔비디아 204.64 (-4.22%), MS 521.91 (-1.55%), 메타 614.99 (-1.53%), 알파벳 279.84 (-1.40%), 블루아울 10.33 (-0.77%), GE버노바 857.87 (-3.38%), 아폴로 115.84 (-2.29%), KKR 94.39 (-1.49%), 블랙스톤 118.51 (-1.73%).
- AI 자금조달의 첫 균열 사례(중요): 모건스탠리가 이끄는 은행단이 앤트로픽과 연결된 텍사스 허바드 데이터센터의 150억 달러 대출 중 일부를 채권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. 텍사스주가 전력망 위험 평가를 위해 신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시킨 영향으로, 은행들이 빚을 예정보다 오래 떠안게 됐습니다(블룸버그 10/29).
출처: CNBC https://www.cnbc.com/2026/10/30/amazon-intel-earnings-big-tech-ai-spending-concerns.html, AP https://apnews.com/article/wall-street-stocks-dow-nasdaq-a01d3551e794fed1a0c317c20bc3f0a2, WSJ 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stock-market-today-dow-sp-500-nasdaq-10-30-2026, 블룸버그 로 https://news.bloomberglaw.com/capital-markets/banks-shelve-bond-sale-for-anthropic-tied-texas-data-center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- 미 국채(10/30 확정): 3개월물 4.16%, 2년물 4.56%, 10년물 4.94%(-0.04%p), 30년물 5.31%. 2년-10년 금리차 +0.38%p. [계산] 새 장기물 입찰은 없었습니다(직전 10/29 7년물은 평이).
- 한국 국고채 3년 3.744% (+0.031%p, 오후 4시 16분). 일본 국채 30년 3.849% (+0.019%p).
- 원화: 서울 외환시장 마감 1,343.8원 (+9.5원).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
- 원유 급락: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"이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"고 말했고, 카타르 중재 협상이 3일째 이어지며 이란도 합의 가능성을 시사(알자지라).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'2일 계획'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. 브렌트 1월물 -4.61% 108.20달러, WTI 12월물 -4.44% 99.50달러(미 동부 오전 5시 49분, 한국 저녁 7시 49분경). 밤 9시경 수집

값은 WTI 99.66, 브렌트 108.69달러. 단 WSJ·NYT는 미국이 11/3 중간선거 뒤 군사행동 재개를 준비 중이라 보도했고 이란 최고지도자도 "즉각 대응"을 위협해, 협상과 충돌 위험이 공존합니다.
- 금 온스당 3,910.50달러 (+0.30%, 진행 중 값).
- 미국 항공유·경유(EIA 현물): 최신 확정값은 여전히 10/27 - 항공유 갤런당 4.444달러, 경유 4.687달러. 10/28 이후 값은 아직 미게시.
출처: CNBC 유가 https://www.cnbc.com/2026/11/02/oil-prices-fall-as-iran-us-pursue-diplomacy.html, 알자지라 https://www.aljazeera.com/news/liveblog/2026/11/1/iran-war-live-araghchi-says-talks-underway-on-2-day-plan-to-reopen-hormuz,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, 네이버증권

■ AI 가격 신호 3종 (10/30 미국 마감 기준)

왜 보는가: AI 투자 붐의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'빌려 쓰는 쪽'과 '반도체'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,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.
1. 반도체 대 지수 괴리: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(SOX) -18.63%, 나스닥 -6.45%. 괴리 -12.18%p로 전날(-7.66%p)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. 반도체의 낙폭이 지수를 크게 앞지르는 상태가 심화됐습니다. [계산]
2. 빅4 대 취약 사업자: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(MS·아마존·메타·구글) 평균 -17.69% (MS -4.0%, 아마존 -15.4%, 메타 -20.9%, 구글 -30.5%), 취약 3사(오라클·코어위브·블루아울) 평균 -41.99% (오라클 -47.3%, 코어위브 -60.2%, 블루아울 -18.4%). [계산]
3. 나스닥 고점 대비 -7.84% (전날 -5.13%). [계산]

[판단]

- 기조: '위험 회피' 유지. 오늘 반등은 연기금·ETF 등 기관의 저가 매수와 수출 서프라이즈가 만든 기술적 반등으로 봅니다. 미국발 균열 신호는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- 반도체 괴리가 -12%p로 벌어졌고, 앤트로픽 관련 데이터센터 채권 매각 보류라는 첫 자금조달 균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. 유가 급락은 물가 압력 완화로 긍정적이지만, 미-이란 협상은 11/3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으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.
- 판단이 바뀌는 조건: (1) SOX-나스닥 20일 괴리의 -5%p 이내 축소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, (2) AI 인프라 채권 매각 보류 사례가 더 나오지 않는 확인(현재 1건), (3) 빅테크의 현금흐름 적자 확산이 멈추는 확인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859.08 아래일 것" - T+1(11/3, 화)과 T+5(11/9, 월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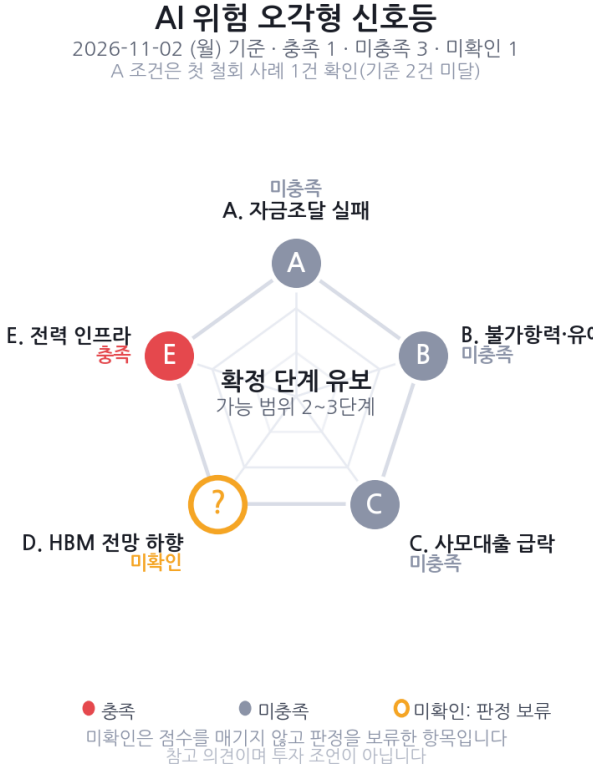
[복기]

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0/26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469.47 아래일 것" (T+5, 11/2 검증) → 실제 종가 5,859.08. 빗나감.
- 10/30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730.74 아래일 것" (T+1, 11/2 검증) → 실제 종가 5,859.08. 빗나감.

- 해석: 금요일 밤의 '추가 하락' 예상은 미국 시장(나스닥 -2.86%)에는 들어맞았지만, 한국 시장은 기관 매수와 수출 호재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. 검증이 끝난 최근 13건 중 적중은 5건입니다. 적중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,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

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미충족 - 단, 첫 확인 사례가 나왔습니다. 은행단(모건스탠리 주도)이 앤트로픽 관련 텍사스 데이터센터 150억 달러 대출의 채권 매각을 보류(10/29 블룸버그). 원인은 텍사스주의 전력망 평가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 일시 중단이라 '시장이 돈을 안 댄' 사례와는 결이 다르지만, 조건 표현상 철회 1건으로 집계합니다. 기준(30일 2건)의 절반입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미충족 - 신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인텔의 이스라엘 공장 중단은 금융 프로젝트 사건이 아니므로 이 조건에는 넣지 않습니다.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미충족 - APO -19.3%, KKR -18.1%, BX -20.6% (10/30

종가). BX 1사만 기준 아래입니다.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확인 -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. 유안타증권은 "반도체 급락은 실적 악화가 아니라 수급 이탈"이라며 두 회사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(11/2).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V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- HD현대일렉트릭 -68.6%, 효성중공업 -55.4%, LS일렉트릭 -49.6%, GE버노바 -27.0%. 오늘 한국 3종이 크게 반등하고도 3종이 기준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(한국 3종 11/2 마감, GEV는 10/30 마감 기준). [계산]
- 종합: 충족 조건은 E 1개('2단계' 해당). A는 첫 사례가 확인되며 '미확인'에서 '미충족(1/2건)'으로 구체화됐고,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(가능 범위 2~3단계). A에 1건이 더 쌓이면 충족으로 바뀝니다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,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(끝)